



생명 고양시 지구 색(Earth tone)으로



글 윤재진(Ph. D.)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우리 일상생활은 유도된 주의(Directed attention: 일부러 어떤 것에 맞추는 과정)에 대한 요구로 인해 정신적 피로가 쉽게 온다.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여유 공간이 적은 획일화된 실내 공간, 도시 공간이 그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있어 정신적 피로는 더 심해졌다.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려면 추가 확진자 없이 2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Keep clam and carry on'이라고 그래도 삶은 계속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공간 변화'다.

인간의 철학적 배경은 동서양 모두 자연 원소 체계다. 동양은 오행과 삼원소(三元素)·사원소(四元素) 서양은 사대원소(四大元素)·오대원소(五大元素) 체계가 자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의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진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개인과 공동체 건강을 위해 물, 공기, 사람이 사는 장소 이 세 요소 영향력을 특별히 강조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근대도시에서 자연과 주거, 공동체 등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기 때문에 이 동서양의 자연 원소 체계 단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도시 문제와 해결책인 시민 네트워크 부상(public charrette: 집중 회의 검토), 공공 경영(governance)은 동서양 자연 원소 체계 정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이제 도시 공간은 기능만으로 구성되고 움직이는 기계 공간이 아닌 1. 사람을 위한 주거지, 2. 친환경 시스템, 3. 생명에 대한 배려, 4.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어야 한다.

2020년 4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살펴보면 활용도가 가장 높은 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통합형' 조례안으로 규정하여 조문을 구성하였다. 필자는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좋다. 통합(統合)

은 가는 실이 모여 합해졌다는 뜻으로 개체가 살아 있다는 의미다. 비유하자면 가는 실 하나하나와 사람과 공간의 합으로 좋은 에너지를 내는 듯하다. 안전하고 편리한 품격 있는 삶이 비전이자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공공디자인이 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 통합 공간 변화에 좋은 대안 방법이 '바이오피릭 디자인(Biophilic design)'이다. 바이오피릭 디자인은 지구색(Earth tone: 자연과 흡사한 톤으로 만들어진 컬러)과 연관성 있다. 바이오피리아(Biophilia)는 '생명 사랑'이라는 뜻이다. 바이오피릭 디자인은 이 바이오피리아와 디자인의 합성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자연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회복'의 효과를 준다. 봄에는 핑크빛 벚꽃을 보러 여름에는 눈과 마음이 맑아지는 녹색의 시원한 계곡과 파란 하늘이 맞닿는 바다를 보러, 가을에는 오색단풍, 겨울에는 하얀 눈을 말이다. 그렇다고 매년 자연으로 나가야 할까? 아니다. 사람은 구축환경 공간 안에서 모의 자연을 통해 혜택을 주는 목적으로도 발전해 왔다.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안으로 들어와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윈도우 XP를 구동하면 초록빛 언덕과 파란 하늘 사진이 그 대표적 예다.*

우리나라 주거 변경 중 좋지 않은 예가 발코니 확장이다. 실내공간은 조금 넓어졌겠지만, 바이오필리아 효과를 누릴 기회가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도시 환경 안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인간의 자연치유(healing)와 웰빙(well-being)이라는 단어로 익숙한 우리말 참살이. 이는 생체학적 반응을 통해 정신적 피로도를 줄여주며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많은 연구 결과로 나타난 바이오필리아 효과(biophilia effect)가 그 증거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좋은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니 코로나19와 함께 발코니 확장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 고양시 지구색으로 가기 위해 바이오필릭 디자인 패턴을 도시 공간과 실내 공간 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바이오필릭 디자인 패턴은 10여 년 넘게 디자이너, 의학, 과학 등 관련 연구자와 이론가가 학제 간 500개 이상 경험적 근거를 증거로 분석 개발됐다. 이해를 돕기 위해 캐서린 오 라이언의 <표> 바이오필릭 디자인 패턴을 참조하자. 앞으로 코로나19는 멈춰도 인간을 위한 바이오필릭 디자인 패턴 항목 실천과 추가 연구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주	요소	바이오피릭 디자인 원리
1. 공간속의 자연 (Nature in the space)	식생, 수역, 다른 요소들의 존재와 다양성 = 상호작용	[1] 자연과의 시각 연결성(Visual connection with Nature) [2] 자연과의 비 시각 연결성(Non-Visual connection with Nature) [3] 비주기적인 감각 자극(Non-rhythmic sensory stimuli) [4] 온도 및 기류 변동에의 노출(Thermal & Airflow Variability) [5] 물의 존재(Presence of water) [6] 역동적이고 발산하는 빛(Dynamic & Di) [7] 자연 체제와의 연결성(Connection with natural systems)
2. 자연 유사체 (Natural analogues)	사물, 물질, 색깔, 모양, 무늬, 유사체	[8] 생물을 연상시키는 형태와 양식(Biomorphic forms & Patterns) [9] 자연과의 물질적인 연결(Material connection with nature) [10] 복잡성과 질서(Complexity & Order)
3. 자연 속의 공간 (Nature of the space)	배치, 심리적 반응, 생리적 반응	[11] 조망(Prospect) [12] 은신(Refuge) [13] 신비함(Mystery) [14] 위험/위기(Risk/Peril)

<표> 바이오필릭 디자인 패턴(BIOPHILIC DESIGN PATTERNS/Catherine O. Ryan, et al. 2014).



* Charles O'Rear(1996)/완벽한 행복(Bliss).

참고문헌 서울디자인재단 지음(2019). 『HUMAN CITY DESIGN』.
윤재진(2017). <바이오피리아 자극유형이 음양오행론 성격유형에 따라 심리적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Browning, W.D., Ryan, C.O., Clancy, J.O. (2014). 14 Patterns of Biophilic Design. New York: Terrapin Bright Green, LLC